

사회

■ 외국인 선교사 부인 진 웰치 여사가 목격한 5·18

“헬기서 군중에 총기 난사”

광주일보에 보내온 ‘광주 항쟁...’ 회상록
“차량에 성조기 달고 다닌 덕에 목숨 부지”

“한국판 ‘천안문 광장’ 사건은 1980년 5월18일 수도가 아닌 서울에서 남쪽으로 321km 떨어진 지방도시 광주에서 일어났다. 어떤 TV도 돌진하는 탱크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영웅(시민군)들의 모습을 담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이를 ‘5·18’이라고 불렀다.”



이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장로교회교회 거주단지에서 살았던 미국 선교사 고(故) 존 T. 언더우드(Underwood, John Thomas)씨의 부인 진 웰치(Jean Welch·82·한국명 원진희)여사가 직접 쓴 회상록 중 일부분이다.



진 웰치씨는 한국 최초의 선교복사이자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를 설립한 고(故) 언더우드(Underwood, Horace Horton) 목사의 손자 며느리이다. 그는 지난 21일 미국 LA에 사는 지인 김홍식씨를 통해 자신이 기록한 ‘광주 항쟁에 대한 기억(The Kwangju uprising remembered)’이라는 제목의 회상록을 본보에 보내왔다.

한 검열이 시작됐다. 통행 금지령은 물론 광주 외부로의 통신도 두절됐다”고 전했다.

A4 용지 26쪽 분량의 이 회상록은 1999년 2월 초 5·18 당시 상황을 기록해둔 자료(테이프·쪽지)를 모아 직접 타이핑한 것으로, 5월 18~27일까지 10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

그는 5월 18일자 글에서 “이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군인 3명이 한 젊은이를 붙잡아 대검 낚은 칼로 위협하며 마구 두들겨 쳤다. 시민들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군인들은 폭력을 멈추지 않았고 시민들을 쫓았다”고 적고 있다.

진 웰치 여사는 5월 광주의 모습을 초조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담았다. 여사는 회상록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언론에 대한 압력

19일자에서는 “복음대회 행사차 전남도청에 가려는데, 군인들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행사는 진행됐지만 밤 9시를 기점으로 통행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예정보다 행사가 일찍 마무리 됐다. 나는 지인을 통해 ‘학생들이 군인들에 의해 부상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회고했다.

20일자에서는 “주요 골목길마다 군인들이 배치됐고, 곳곳에서 실종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과 미국에서 온 손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두 청년을 남평으로 도피시켜준 뒤 돌아오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21일자에는 “군인들이 도심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도심은 평화로웠다.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다’며 외쳐댔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였다. 다시 군인들이 배치되면서 헬리콥터가 도심을 순회하며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고 적었다.

처참했던 광주의 상황도 오히려 담겨 있다. 22~27일자에서는 “우리는 차에 ‘외국인의 차량’이라 쓰고 성조기를 달고 다닌 덕분이다. 그러나 목숨은 부지할 수 없었다. 광주 송정역에서 카메라를 꺼내 당시의 모습을 담은 한 목사는 무장한 군인한테 카메라 필름을 빼앗겼다. 마지막날 정부는 라디오를 통해 광주 통제 사실을 밝혔다고 했다.”

진 웰치 여사는 “30주년을 맞아 민주화를 위해 무참히 희생된 5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이 잘 알려져 아픈 역사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책속에 꿈이 있어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23일)을 앞두고 22일 신안임자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광주 총장서림을 찾는 ‘꿈을 찾아 나선 서점 여행’을 마친 뒤, 각자 구입한 책을 들어 보이며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16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꽁’ ‘꽁’ 전남해상 선박 충돌 잇따라

지난 해 51건 2008년의 2.7배...올 들어서도 사고 급증

전남지역 해상에서 음주운항과 운항 부주의, 기관·장비 미점검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해양 충돌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2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와 완도, 여수 등 서남해지역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건수는 총 51건에 달했다.

이는 2008년(18건)에 비해 2.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단순한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 등에 따른 사고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진도와 여수에서 잇따라 발생한 선박사고도 각각 음주운항과 운항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20일 밤 10시15분께 여수시 삼산면 백도 남동쪽 16km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가 운항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부산선적 770t급 화물선주의와 정비불량 등에 따른 사고가

고 발생 10시간 만인 21일 오전 8시 10분께 침몰했다. 해경은 이 사고가 두 선박 모두 전방주시를 소홀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진도군 임회면 장죽도 서쪽 2.2km 해상에서 남해선적 꽃게잡이 어선 ‘5만천호’(선장 주모·59)가 유조선과 충돌해 선원 4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갑판장 최모(44·경남 거제시)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99% 상태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음주운전 동승자도 입건

광주 북부경찰

광주북부경찰은 2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오모(38·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 서모(36·" 우산동)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밤 9시27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상태로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운암동 모 문구점까지 3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또 서씨는 같은 날 밤 함께 술을 마신 오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고 운전을 하게 한 혐의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서남해역은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

유속 빠르고 항로 협소, 농무도 잦아

서남해안 해역은 ‘한국판 버뮤다 삼각지대’인가? 서남해안 해역에서 지난해 사고를 당한 선박은 모두 51척이다. 이는 2008년 18건 보다 2.7배 늘어난 수치다.

서남해안 해역에서는 왜 사고가 잦을까. 우선 다른 해역보다 빠른 유속을 꼽을 수 있다.

서남해안의 평균 유속은 시속 3~4노트(1노트=1.852 km/h, 5.4~7.2km)로 다른 해역(평균 2~3노트, 3.6~5.4km)보다 빠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항로의 폭이 협소한 지역이 많은데

다 목포·완도 등 주요 항구의 진입로가 복잡한 점도 주요 원인의 하나다.

특히 겨울철엔 강한 북서풍이 자주 불고 파고가 높기로 유명하다. 서남해안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실종자들의 시신을 절반 이상 수습하지 못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따뜻한 날씨로 연안 해역에 농무가 자주 끼는 점, 연륙교를 비롯한 다양한 섬개발 등으로 인해 해저 지형이 많이 변한 점도 사고를 부추기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종행 기자 galee@kwangju.co.kr

나원침 (8093) 김중두



“나 조폭” 돈 안 갚은 3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2일 자신이 ‘조폭’이라는 점을 내세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이모(33·장성군 남면)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판매업자 정모(28·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로부터 자신의 통장 계좌로 현금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주차비 4000원 아끼려다 음주 들롱

○주차비 4000원을 아끼려던 40대 운전자가 주차장 주인

과 경찰관을 잇따라 폭행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롱나 댔서리. ○광주동부경찰은 22일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린 이모(41)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이씨는 지난 21일 밤 11시경 동구 불로동 H주차장에서 주인 박모(34)씨를 폭행한 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주차요금을 2000원이나 냈는데도 돈을 더 요구해 화가났다. 4000원 아끼려다 수백만원 을 더 물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나주시 잇단 공직비리

경찰, 브루셀라 소 살처분 과다 보상 등 수사

나주경찰은 22일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소 몸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준 혐의로 나주시 축산과 직원이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나주시 축산과 직원은 농민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살처분 대상 소의 몸무게를 늘려주고 해당 농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2008년 나주시가

추진한 택시브랜드사업도 관련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대상이 된 택시브랜드사업의 경우 불량단말기 장착 논란에 이어 최근 영연비 부정수령 의혹까지 일면서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나주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산림가꾸기사업을 집행하면서 유류 구입비를 빼돌린 혐의로 7급 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Large advertisement for MDPass and Seoul High School Exam Preparation. It features bold text for '7.9 공무원 경찰직' (7.9 Civil Service Police Exam) and '의사/약사가 되는 길' (The Path to Becoming a Doctor/Pharmacist). The ad lists various exam preparation services, including '개강 매월 1회' (Monthly classes), '평방직/교육평방직/사무직' (Public/education/public service jobs), and '4월 1회' (April exam). It als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서울고시학원' (Seoul High School Exam Prep) with phone number 514-4560 and website kgsol.co.kr, and 'MDPass' with phone number 233-3433 and website mdpass.co.kr.